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19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4. 1. (제 6 차)	

금융감독원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4. 1.

1. 의결주문

□ 2019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승인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회계기간 : 2019. 1. 1. ~ 2019. 12. 31.(제21기)

나. 수지현황

□ 2019년 총수입은 3,906억원, 총지출은 3,410억원으로 당기 수지차익(분담금 반환 전 기준)은 496억원 발생

○ 당기 수지차익(496억원)은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수납비율에 따라 납부기관별로 반환 예정

○ 반환 예정금액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368억원(74.3%), 발행분담금 납부기관은 128억원(25.7%)

다. 재무현황

□ 2019년말 기준 자산은 2,821억원으로 전년 말(3,146억원) 대비 325억원 감소(△10.3%)

○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근로·퇴직소득 등 지급(321억원)에 기인

□ 2019년말 기준 부채는 470억원으로 전년 말(779억원) 대비 309억원 감소 (△39.7%)

○ 통상임금 충당부채 감소(△237억원) 및 퇴직연금 운용자산 예치금 증가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*(△123억원) 등에 주로 기인

* 「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」 상 외부 예치비율 증가(80%→90%) 등

□ 2019년말 기준 자본은 2,351억원으로 전년 말(2,367억원) 대비 16억원 감소(△3.1%)

○ 수지차익 감소(496억원, 전년 대비 △16억원)에 기인

라.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 현황

□ 총수입(3,906억원) : 예산액(3,556억원) 대비 +9.8% 초과 수입(+350억원)

○ 당초 추정 대비 회사채 발행 증가(2018년 160.9조원 → 2019년 170.2조원, +5.8%)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증가(예산 대비 +314억원)에 주로 기인

□ 총지출(3,410억원) : 예산액(3,556억원) 대비 95.9% 집행(△146억원)

○ 경비예산 축소('18년 803억원 → '19년 768억원) 및 경영평가 등급 상향('17년도 C → '18년도 B)에 따른 평가상여금 지급액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집행률 +2.9%p 증가

4. 참고사항

가. 2019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주요내용 : < 붙임 1 >

나. 2019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심의 결과 : < 붙임 2 >

다.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규 : < 붙임 3 >

라. 2019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: < 별첨 >

(별지)

2019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 승인

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및 제45조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별첨 「2019 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서(안)」를 승인한다. 다만,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 심의 시 제기된 지적사항(붙임 2)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2021년도 예산심의 시 금융위원회에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한다.

1. 결산 개요

□ (회계기간) 2019. 1. 1. ~ 2019. 12. 31.(제20기)

□ (수지현황) 총수입은 3,906억원, 총지출은 3,410억원, 당기 수지차익은 496억원(분담금 반환 반영 전 기준)

- 수지차익이 496억원 발생한 것은 당초 예상 대비 발행분담금 납부액이 증가하면서 총수입이 350억원 증가한 것*에 기인

* '19년도 발행분담금 추정액 647억원, 발행분담금 징수액 961억원

- 수지차익은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기관별로 반환될 예정 (감독분담금 368억원, 발행분담금 128억원)

* 근거 :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제12조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8조

□ (재무상태) '19년말 기준 총자산은 2,821억원, 부채와 자본은 각각 470억원 및 2,351억원

<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 현황(요약)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금 액	구 분	금 액
I. 총 수 입	3,906	II. 총 지 출	3,410
운영수입	3,838	일반관리비	3,161
운영외수입	68	운영외비용 등	249
		III. 수지차익	496
합 계	3,906	합 계	3,906
IV. 자 산	2,821	V. 부 채	470
유동자산	1,277	유동부채	143
비유동자산	1,543	비유동부채	327
		VI. 자 본	2,351
		기본재산	1,855
		수지차익	496
합 계	2,821	합 계	2,821

2. 수지 현황

□ (수입) '19년 중 총 수입은 3,906억원으로 전년(3,884억원) 대비 22억원 증가(+0.6%)

- '19년도 금감원 예산 축소로 감독분담금이 △40억원 감소하였으나, 회사채 발행증가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+45억원 및 제가입권과 노후 공관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*에 주로 기인

* 매각차익(제가입권 1.3억원, 공관 6.4억원) 및 관련 비유동자산준비금 환입액 11억원

□ (지출) '19년 중 총지출은 3,410억원으로 전년(3,372억원) 대비 +38억원 증가(+1.14%)

- 통상임금판결('19년)에 따른 시간외·연차수당 단가 상승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것에 주로 기인

□ (수지차익) '19년 중 수지차익은 496억원으로 전년(512억원) 대비 △16억원 감소(△3.1%)

* 수지차익 추이(억원) : '16년 129 → '17년 466 → '18년 512 → '19년 496

< 부문별 수입·지출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19년 (A)	2018년 (B)	증 감(A-B)		비 고
			금 액	증감률	
I. 총 수입	3,906	3,884	22	0.6	
운 영 수 입	3,838	3,833	5	0.1	
감독분담금	2,771	2,811	△40	△1.4	감독분담금 예산 축소로 인한 감소
발행분담금	961	916	45	4.8	회사채 등 발행 증가
한은출연금	100	100	-	-	
기타수입수수료	6	6	-	0.7	
운영외수입	68	51	17	32.9	자산매각으로 인한 처분이익 등
II. 총 지 출	3,410	3,372	38	1.1	
일반관리비	3,161	3,070	91	3.0	
인 건 비	2,187	2,108	79	3.8	
경 비	762	752	10	1.3	
퇴직급여	213	209	4	1.3	
운영외비용 등	249	302	△53	△17.7	통상임금충당부채 설정금액 24억원 감소, 회계기준원 지원금액 28억원 감소 등
III. 수지차익	496	512	△16	△3.1	

3. 재무상황

- (자산) '19년말 자산 총계는 2,821억원으로 전년 말(3,146억원) 대비 △325억원 감소(△10.3%)
- 통상임금소송 1심 판결('19.7월)에 따른 근로소득, 퇴직소득 및 지연이자 지급(총 321억원) 등에 기인
- (부채) '19년말 기준 부채 총계는 470억원으로 전년말(779억원) 대비 △309억원 감소(△39.7%)
- 통상임금충당부채 감소(△237억원), 퇴직연금 운용자산 예치금 증가* 등에 따른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소에 기인
- *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§5에 따른 외부 예치비율 증가(80% → 90%)
- (자본) '19년말 자본총계는 2,351억원으로 전년말(2,367억원)보다 △16억원 감소(△3.1%)

< 부문별 재무상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19년 (A)	2018년 (B)	증 감(A-B)		비 고
			금 액	증감률	
I. 자산총계	2,821	3,146	△325	△10.3	
유 동 자 산	1,277	1,692	△415	△24.5	
예 금	1,271	1,684	△413	△24.5	통상임금 지급 및 퇴직운용자산 대체
미 수 금	2	2	-	6.9	
기 타	4	6	△2	△30.2	
비유동자산	1,543	1,453	90	6.2	
투자자산	328	189	139	73.4	퇴직연금운용자산 174억원 대체
유형자산	1,147	1,192	△45	△3.8	건물·구축물 감가상각 등
무형자산	68	72	△4	△4.9	개발비 등 자본예산 집행 감소
II. 부채총계	470	779	△309	△39.7	
유 동 부 채	143	65	78	120.0	
미지급금	3	-	3	-	
예 수 금	90	46	44	96.1	연도말 평가상여금 일괄지급에 따른 소득세 예수금 증가 등
기 타	49	19	30	96.6	
비유동부채	327	714	△387	△54.2	
퇴직급여충당부채	-	123	△123	-	퇴직연금운용자산 예치금액 증가
비유동자산준비금	198	224	△26	△11.1	
통상임금충당부채	127	364	△237	△65.0	통상임금지급 및 신규설정
소송충당부채	2	1	1	86.6	인사관련 소송충당부채 설정
기 타	-	3	△3	-	
III. 자본총계	2,351	2,367	△16	△0.7	
기 본 재 산	1,855	1,855	-	-	통합 시 인수재산 및 한국은행 출연금
수 지 차 익	496	512	△16	△3.1	

4. 예산액 대비 수입 및 집행현황

□ (수입) '19년 중 총수입액은 3,906억원으로 예산액(3,556억원) 대비 350억원 증가(+9.8%)

○ 당초 추정 대비 회사채 발행 증가*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증가(예산 대비 +314억원, 전년 대비 +44억원)에 주로 기인

* 공모 회사채 발행액(조원) : '16년 109.9 → '17년 144.0 → '18년 160.9 → '19년 170.9

< 예산수입 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19년 예산		2019년 수입		차 이 (B-A)	수입률	
	(A)	구성비	(B)	구성비		(B/A)	2017년
감독분담금	2,771	77.9	2,771	70.8	-	100.0	100.0
발행분담금	647	18.2	961	24.6	314	148.5	134.5
한은출연금	100	2.8	100	2.6	-	100.0	100.0
운영외수입 등*	38	1.1	74	1.9	36	197.5	176.3
합 계	3,556	100	3,906	100	350	109.8	107.2

* 수입이자도 예산대비 11.6억원 증가(예산 16.7억원 → 실제 28.3억원)

□ (집행) '19년 중 집행액은 3,410억원으로 예산액(3,556억원) 대비 95.9%의 집행률을 시현(전년 대비 +2.9%p)

○ 경비예산 축소('18년 803억원 → '19년 768억원) 및 경영평가 등급 상향*에 따른 평가상여금 지급액 증가에 기인

* 금감원 경영평가 등급 : '17년도 C등급 → '18년도 B등급

< 예산집행 현황 >

(단위: 억원, %)

구 분	2019년 예산 ¹⁾		2019년 집행		차 이 (B-A)	집행률	
	(A)	구성비	(B)	구성비		(B/A)	2017년
일반관리비	3,278	92.2	3,161	92.7	△117	96.4	94.1
인 건 비	2,255	63.4	2,187	64.1	△68	97.0	95.4
경 비	768	21.6	762	22.3	△6	99.2	93.9
퇴직급여	255	7.2	212	6.2	△43	83.1	84.3
자 본 예 산	51	1.4	48	1.4	△3	94.1	91.2
운영외비용 등	227 ²⁾	6.4	201	5.9	△26	88.5	81.1
합 계	3,556	100.0	3,410	100.0	△146	95.9	93.0

1) 임직원 평가상여금, 통상임금 지급 및 통상임금충당부채 전입에 사용한 예비비 279억원 (인건비 134억원, 퇴직급여 9억원, 경비 4억원, 자본예산 5억원, 운영외비용 127억원) 포함

2) 예비비 미사용액 43억원(목적예비비 42억원, 일반예비비 1억원) 포함

5. 기타 사항

□ 예산 초과계리: 36.6억원

- 세금과공과(+22.1억원), 운영외비용(+12.2억원), 법인세비용(+2.3억원) 비목에서 예산보다 36.6억원 초과 집행

* 금융감독원장은 퇴직급여, 감가상각비, 세금과공과, 운영외비용, 법인세비용 등의 비목에 대하여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可(예산총칙§8)

(단위: 억원)

과 목	'19년 예산 (A)	'19년 집행 (B)	차 이 (B-A)	비 고
세금과공과	213.1	235.2	22.1	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집행액 증가
운영외비용	29.9	42.1	12.2	제가입권 시가하락분 반영 및 매각처분 손실 해외사무소 전도금 환차손 등
법인세비용	2.8	5.2	2.3	금리 상승에 따른 정기예금 수입이자 증가
합 계	245.8	282.5	36.6	

□ 예비비 : 322억원 중 279억원 사용

- 평가상여금(134억원) 및 특별사법경찰 관련 자본예산(4억원), 통상 임금 소송 관련 충당부채 전입(127억원) 등에 사용

< 예비비 사용 내역 >

(단위: 억원)

구 분	사용 전 예산액(A)	사용액(B)	사용 후 예산액(A-B)
예 비 비	322	279	43
목적예비비	313	271	42
일반예비비	9	8	1

< 예비비 배정 관련 비목 예산 >

(단위: 억원)

구 분	배정 전 예산액(A)	배정액(B)	배정 후 예산액(A+B)
인 건 비	2,055	134	2,189
퇴직급여	246	9	255
경비(여비교통비)	39	4	43
특별사법경찰 관련	-	4	4
자본예산 등	-	4	4
운영외비용	-	127	127
통상임금충당부채 전입액	-	127	127
합계	2,340	279	2,618

1. 심의 경과

- 금융감독원 2019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하고자 '20.3월 중 「금융감독원 예·결산심의 소위원회」를 개최(3.9, 3.23, 3.30)

*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§18, 「금융위원회 운영규칙」 §14 등에 따라 설치·운영 중

2.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논의 결과

① 수입예산 추정 정확도 제고

- '19년도 결산 결과, 발행분담금이 예상 대비 314억원 초과 징수*되는 등 발행분담금 추정 모델을 개선**할 필요

* 예상치 647억원, 실수령 961억원 → 예상치 대비 +48.5% 초과

** 발행분담금 과소 추정할 경우 감독분담금 징수액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향후 환급시점까지 금융회사 자금운용 등에 부정적 영향

◆ (부대의견) 발행분담금 추정모델을 점검·개선하고, '21년도 예산안 제출시 이를 반영할 것

② 경영효율화 노력 지속 필요

- 그간 예·결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관 사례 및 감사원 지적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에 다각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권고*

* 단신부임여비, 주거지원, 여비교통비, 의료비, 휴가제도 등

- 노사 간 이견으로 규정 개정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측면

◆ (부대의견) 경영효율화와 관련한 과거 예·결산 부대의견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쳐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것

③ 해외사무소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

- 금융감독원은 '19.5월 홍콩사무소 폐쇄 및 해외사무소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나, 보다 실효성있게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존재

◆ (부대의견) 해외사무소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('17.9월, '20.1월)를 이행할 것

④ 금융교육

-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은 초·중·고교 및 대학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고령층,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은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실시되는 측면
- 금융교육 이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환류 체계가 다소 미흡한 측면

◆ (부대의견)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비중을 확대하고,

- 금융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것

⑤ 정보화사업

- 금융감독원은 정보화사업의 세부 과제를 예산 신청시(전년도 10월초) 마련함에도 최초 입찰공고는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늦어지는 경향(통상 예산 승인 후 5~6개월 이후 실시)
- 최초 입찰공고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 수행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차년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

◆ (부대의견) 정보화사업 예산이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입찰 절차를 개선할 것(예 : 최초 입찰공고는 예산배정 후 2개월 내 실시 등)

⑥ 예산편성·집행 프로세스

- 금융감독원은 '18년도 결산 부대의견과 관련하여 회의행사비 집행범위를 명문화*하고,

* ①업무관련성, ②회의행사의 실질, ③회의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

- 직원 복리후생 관련 예산은 “복리후생비”로 변경·편성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

- 다만, 회의행사비, 광고홍보비, 용역비 등 비목별로 승인된 경비예산이 정부 등 타 기관에 비추어 통상적인 방식과 다소 다르게 집행되는 측면

◆ (부대의견) 정부 예산지침* 등을 참조하여 예산집행 현황 점검 및 예산집행 기준을 개선하고,

- '21년도 예산안 제출 시 이를 반영할 것

* 공공기관은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」에서 정부의 「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」 및 「예산안 작성 세부지침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함

붙임 3 | 금융감독원 결산 관련 법령

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

제18조(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·감독)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·운영·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2.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

제45조(예산과 결산) ③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2조(분담금)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으며,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.

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 중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금액	×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분담금 </div> <hr style="width: 80%; margin: 10px auto;"/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합계 </div>
--	---	---

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88조(분담금의 분담요율·한도 등) ② 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한도 및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분담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혁신기획재정담당관
연 락 처	02-2100-2782